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가족정책의 대응방안¹⁾

Economic Crisis and Family Policy



송혜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박정윤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경제적 위기 상황이 가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 위기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 양상을 포착하였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체감성, 효율성, 소구성을 위하여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머리말

현재,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화, 수출 악화, 내수 침체 등 경제위기의 징후들이 지속되면서 수출과 고용, 기업의 투자, 소비 등의 지표에 고스란히 표출되어 체감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개별가정의 반응이 나타나, 가계소비 감소, 실질 가계소비지출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²⁾, 체감경기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IMF 시기 이후의 자료를 보면, 가계소비지출은 가계소득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감소폭이 소득의 변화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득의 감소는 소비지출 뿐 아니라 가계자산운영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³⁾. 따라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가족의 경제적 토대가 취약해 지고 전체적인 소득-소비지출-자산상태 등의 부정적 변화와 취약화가 우려되는 바이다. 경제 위기로 인한 개별 가정의 상황은 양극화, 빈곤의 악순환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1) 본 연구는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주최 제 1차 가족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재구성한 것임.

2) 박종규, 2008 - 고선강(2009). 주부의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질적 접근: 경제위기에 대한 개별가정의 이해와 대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99~118 재인용.

3) 양세정(2002).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경제구조 대응행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81~93.

양산하고 국가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우리 모두는 경제 위기의 실제적·잠재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한 경제 위기는 단지 가계경제상태 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IMF 이후 발표된 통계들은 가족폭력이나 가족해체 등의 가족위기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한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가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도 가져다주었다⁴⁾.

개별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제한된 자원으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관리의 주체이다. 또한 다른 집단과는 달리 호혜적이고 자발적인 돌봄을 통해 관계가 지속되며, 그 기저에는 이타성과 협력, 배려 등이 작용함으로써, 날마다의 생활의 유지·인간다운 삶·공동체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⁵⁾. 나아가 이타심, 도덕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 중요한 사회적 자본⁶⁾의 요소들을 상호적으로 교환하고 획득하고 축적하는 생활의 단위라는 점에서, 가정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한 개인의 삶의 질, 사회통합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족 그리고 가정에 미친 경제적 위기는 그야말로 일상생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신체적·물리적 건강, 미래 세대를 위한 돌봄과 교육, 안정된 소득과 의식주생활 유지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즉 직면한 경제 문제를 긴급히 해결하면서 잠재적 문제의 예방 그리고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위기 상황이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실태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정책의 대응방안으로서, 정책이 갖는 체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 추진의 대표적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회안전망 제언, 국가적 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실천전략을 강구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경제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빈곤층/차상위계층 가족의 악화, 위기에 직면한 가족의 취약화, 여성고용의 불안정, 출산과 결혼의 기피와 연기 그리고 기타 가족문제의 심화 등으로 축약된다. 불안정한 노

동·고용시장 상황에서 빈곤층/차상위계층 집단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들이 여기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다. 특히 국가의 지원 대상은 아니면서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족, 소위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중하집단(중위소득 50~70%사이)은 그 특성상 가구주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자산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직과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빈곤층이나 차상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또한 한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중산층으로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⁷⁾. 여성고용의 측면에서는 고용시장의 악화에 따라 더 빨리, 더 쉽게 해고되는 여성고용 특성상,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할 여지가 더욱 커졌고, 이는 가정의 돌봄기능의 취약화와 불안정화를 초래한다. 한편 경제적 위기는 미래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청년실업, 임금수준 하락 등에 따라 결혼준비자금 마련이 더 힘들어지는 것 또한 결혼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다⁸⁾.

이로써 근본적인 가족가치, 가족의 세대적 재생산 기능의 약화 등이 우려된다. 나아가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3~4년 동안 이혼율이 늘어났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경제 위기가 가족 간 갈등과 불화 등 가족관계의 악화에 영향 미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도, 경제 불황으로 사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혼 상담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다⁹⁾. 또한 경제 위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유기와 방치에도 영향을 미쳐¹⁰⁾, 다양한 가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족생활의 변화를 종합컨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빈곤이나 폭력,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의 차원에서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을 알 수 있다.

2009년 2월 시민단체인 (사)가정을건강하게 하는시민의모임에서는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와 실제적인 경험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평균 40대, 자녀를 1~2명 기르는, 평균소득 300만원 대의 평범한 가정이다¹¹⁾.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백종만 - 전라일보 2009-03-30일자.

8) 경기가 나쁘면 결혼이 줄고 이는 출생에 영향-작년 출산율 1.19명, 3년만에 줄어(한겨레 2009-02-25). 경제위기는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경향닷컴 2009-01-13). 2008년도 결혼 건수는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출산은 더 감소 (KBS 뉴스 2009-03-26).

9) 작년 한해 경제난을 이유로 이혼 상담한 비율 21%에서 크게 늘어났다(MBC 2009-01-24). 실직, 이혼...개인파산 신청 급증. 경기 침체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 급증. 대부분 생활비 정도를 충당하기 위해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 경제적 위기로 가정불화, 이로 인한 이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악순환 구조(CBS노컷뉴스 2009-03-10).

10) 극심한 경제난 속에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가난으로 버림받는 아동, 청소년 증가. IMF 이후 소년 범죄 급증추세, 최고에 달함. (SBS 뉴스추적 2008-11-12). 외환위기...금융위기...거리 내몰린 10대들, 10년 사이 두 번 버려진 아이들, 가정 해체 겪으면서 가난의 늪 못 벗어나, PC방·찜질방 전전...범죄·비행 위험 노출(중앙일보 2009-01-14).경제난에...'부모 있는 고아' 늘어난다. '고아 아닌 고아'가 생기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근 더 악화된 경제난 때문(조선일보 2008-12-01).

1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4) 이미숙·고선주·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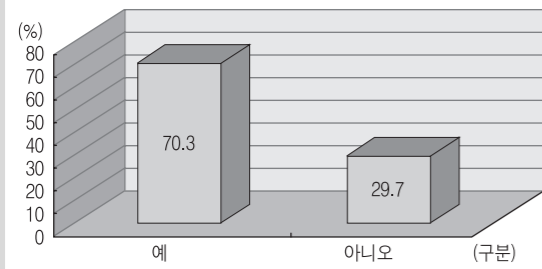
5) v.Schweitzer(1991).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ulmer Verlag.

6) 이정전, 2003 - 송혜림(2007).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대한가정학회 2007년도 춘계 통합 학술대회 자료집 재인용.

1)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 상의 변화

경제위기로 인해 개별 가정에서 실제적 타격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그렇다” 가 약 70%를 차지, 조사대상자의 2/3 이상이 경제 위기로 인해 실제적인 타격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제 위기로 인한 실제적 타격 경험 유무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이러한 실제적 타격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과 자녀유무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경제적 타격 경험의 비율이 높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6개월 간 가계지출 감소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다.

가계지출 감소경험 여부에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75.2%로 나타나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한 응답에 비해 가계지출 감소 경험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가구소득과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 가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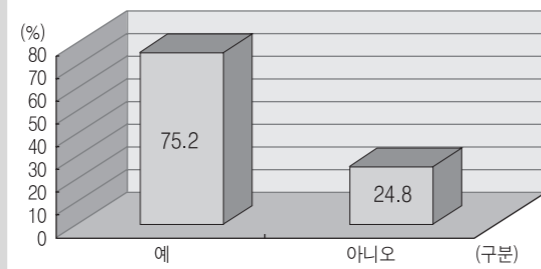
득이 낮을수록 가계지출을 줄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세 미만 집단과 51세 이상 집단에서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41~50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41~50세 집단에서 가계지출의 탄력적 운용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가계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 지출감소 항목을 조사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다. 교육비보다 외식비, 여가비 등의 지출을 먼저 줄이고 있으며, 특히 교육비 지출보다 식비 지출을 먼저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부각된다.

수입이 없어질 경우 현재 자산으로 생활유지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생활유지 가능기간은 “3~6개월”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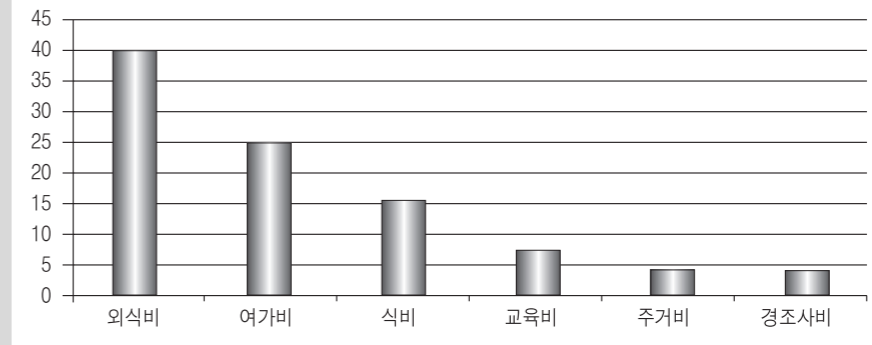
비책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년 이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5%에 불과

그림 2. 지난 6개월 간 가계지출 감소 경험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그림 3. 지난 6개월간 지출감소 항목별 순위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위기가 계속될 경우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연쇄적으로 가정생활 전반의 위기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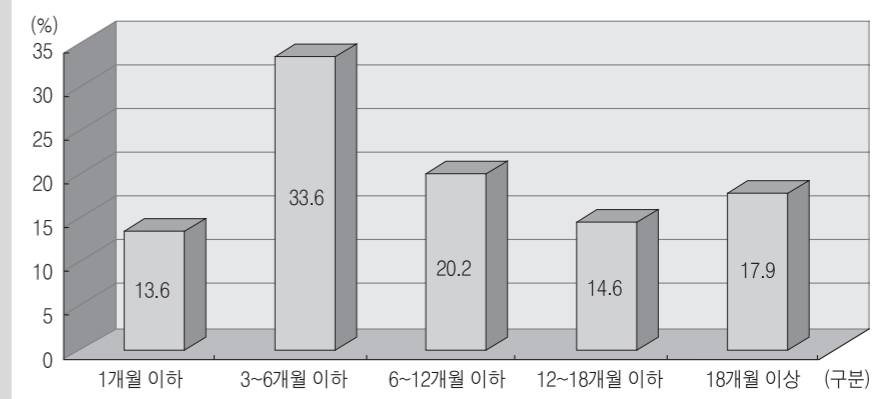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유지기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현재

수입이 끊어질 경우 생활유지가 가능한 기간이 더 짧은 것이 밝혀졌다.

한편 지난 1년간 조사대상자의 가구의 물질적 곤궁 경험 여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위의 결과에서 총 10개 영역의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여부를 합산하여 살펴 본 결과, 한 가지 영역에서도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림 4. 수입이 없어질 경우 현재 자산으로의 생활유지 가능기간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가구가 53.1%, 1개 이상을 경험한 가구가 46.9%였다. 이 중 3개 이상 영역에서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가구는 21.3%에 달하였다. 이러한 물질적 곤궁 정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 자녀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홀벌이 가구에 비해 물질적 곤궁 정도가 높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에 비해 물질적 곤궁 정도가 더 높았다. 본 자료에서 맞벌이 가구와 유자녀가구의 가구

소득이 각각 홀벌이 가구나 무자녀가구에 비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곤궁 정도를 경험한 정도가 더 높아서 가구소득과 물질적 곤궁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한 응답자는 총 64.2%였다(“약간 그렇다” 35.9%, “매우 그렇다” 28.3%). 또한 가족의 “결속력이 강해졌다”고 한 경우는 55.9%(“약간 그렇다” 42.1%, “매우 그렇다” 13.8%)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부정적 결과(부부싸움/가족말다툼 증가)보다는 가족의 중요성 인식/가족의 결속력 강화 등의 긍정적 결과가 비율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관계 상의 변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관계상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서 질문한 결과 먼저 <표 2>에서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1년간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부부싸움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5%이고, “돈 문제로 가족 간의 말다툼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6.2%이다. 즉, 응답자 5명 중 한 명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을 다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2항목)와 부정적 변화(3항목)를 합해본 결과, 부정적인 가족관계의 변화보다 긍정적인 가족관계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다고 한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가족관계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가족의 중요성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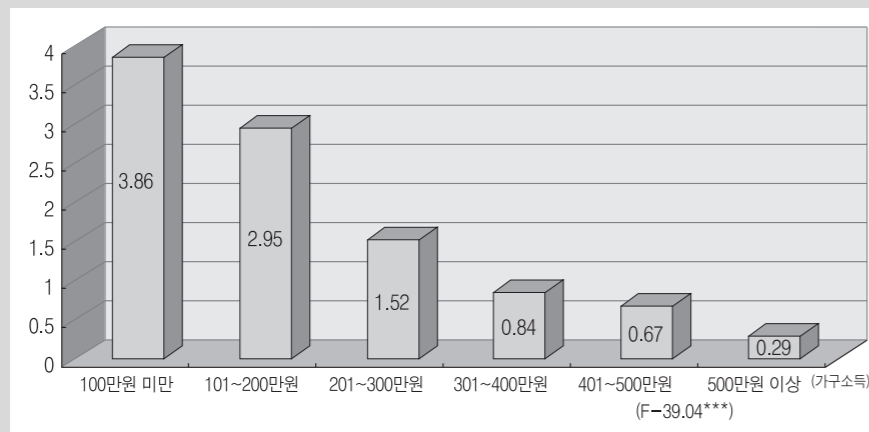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 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정적 변화 경험은 가구소득, 성별, 자녀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긍정적 변화 경험은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

표 1. 지난 1년간 물질적 곤궁 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무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1.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30	3.2	852	91.8	46	5.0
2. 집세 때문에 집을 옮긴 적이 있다.	63	6.8	792	85.3	73	7.9
3. 공과금을 밀린 적이 있다.	191	20.6	704	75.9	33	3.6
4. 서비스가 끊긴 적이 있다.	71	7.7	818	88.1	39	4.2
5. 자녀교육비를 주지 못한 적이 있다.	98	10.6	712	76.7	118	12.7
6.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87	9.4	796	85.8	45	4.8
7.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93	10.0	791	85.2	44	4.7
8. 신용불량자가 있다.	140	15.1	744	80.2	41	4.4
9.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	321	34.6	566	61.0	32	3.4
10. 돈을 꾸는 적이 있다.	258	27.7	635	68.1	35	3.8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그림 5. 소득집단에 따른 물질적 곤궁 정도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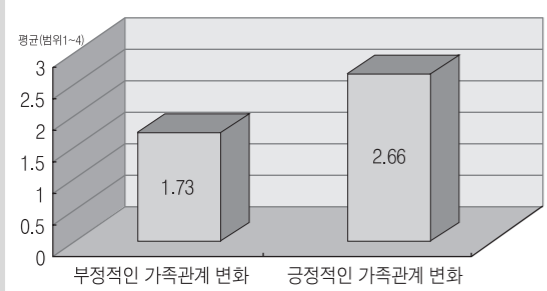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표 2. 지난 1년간 가족관계의 변화: 항목별 분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부부싸움이 늘었다.	319	34.2	365	38.6	185	18.8	25	2.7	34	3.7
2. 돈 문제로 가족 간의 말다툼이 늘었다.	294	31.0	351	37.7	216	22.5	35	3.7	32	3.4
3.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 졌다.	422	44.5	350	36.7	103	11.2	18	1.9	35	3.8
4. 결속력이 강해졌다.	115	12.4	359	38.7	391	42.1	128	13.8	54	5.8
5. 가족의 중요성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91	9.8	213	23.0	333	35.9	263	28.3	48	5.2
6. 이혼을 생각했다.	654	70.5	168	18.1	49	5.3	19	2.0	62	6.7
	있다		없다		비해당/무응답					
7. 배우자나 자녀가 가출한 적이 있다.	29	3.1	841	90.6	58	6.3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그림 6. 지난 1년간 가족관계 변화 비교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부정적 가족관계의 변화 경험과 가정생활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가족관계 변화 경험과 가정생활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반면, 부정적 가족관계의 변화 경험과 가정생활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즉, 현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관계 상의 부정적 경험임을 알 수 있다.

고 무자녀 가정에 비해 유자녀 가정에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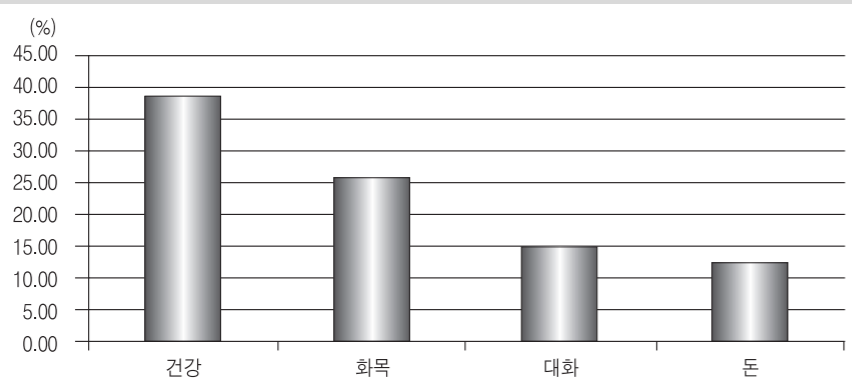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족 행복의 첫 번째 요소를 조사한 결과 [그림 7]과 같다.

표 3. 가족관계변화와 가정생활 만족도 상관관계

	긍정적 가족관계 변화	부정적 가족관계 변화	가정생활만족도
긍정적 가족관계 변화	1.00		
부정적 가족관계 변화	-.08*	1.00	
가정생활 만족도	.06	-.31***	1.00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그림 7. 가족행복의 첫 번째 요소



자료: 송혜림 외(2009). 경제위기와 가정 :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즉, 가족행복의 첫 번째 요소는 건강>화목>대화>돈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득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여, 소득 200만원 이하 집단의 경우 3순위가 돈, 4순위가 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함축하는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녀를 기르는 가족이 경제적 타격, 물질적 궁핍 등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욱 긴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가구소득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부정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특히 200~300만원 대의 소득이 있는 서민집단, 즉 앞에서 강조한 바 위기에 직면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여가비나 외식비와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비용은 물론이고 식비까지 먼저 줄이면서도 교육비는 나중에 줄인다는 결과로부터, 개별 가정이 갖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하여 정책 체감도와 소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 위기로 인하여 긍정적 가족관계의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났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 변화의 정도가 높다는 점,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 변화라는 점에 비추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가족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방적 서비스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3. 경제 위기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 -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모형 개발

위와 같은 실태조사결과와 함의에 기초하여, 경제 위기가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그 이후까지 대비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적 제안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비스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가정의 자원화와 역량 강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식이 빈곤, 학대, 폭력, 유기 등 문제 발생 후 해결에만 초점을 둔다면, 국가사회적 비용 대비 장기적 효과의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 번 빈곤층, 수급권자가 되어 버린 개인과 가족이 다시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며, 가족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해결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가족문제 예방 그리고 가정의 역량 강화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주체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의 자원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공적 지원이 가정에 대해 일방적 개입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역량과 자립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 가정의 실제적/잠재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동기 제공, 이로써 가정의 자립, 가정의 자원화, 다른 가정과의

협력 등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

이미 현 정부 들어 사회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능동적 복지를 강조해 온 바, 예방·맞춤·통합 정책이 강조된다³⁾. 그러므로 가정 문제의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점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 예컨대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가정경영 아카데미,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이 표출하고 있는 지향성 역시 이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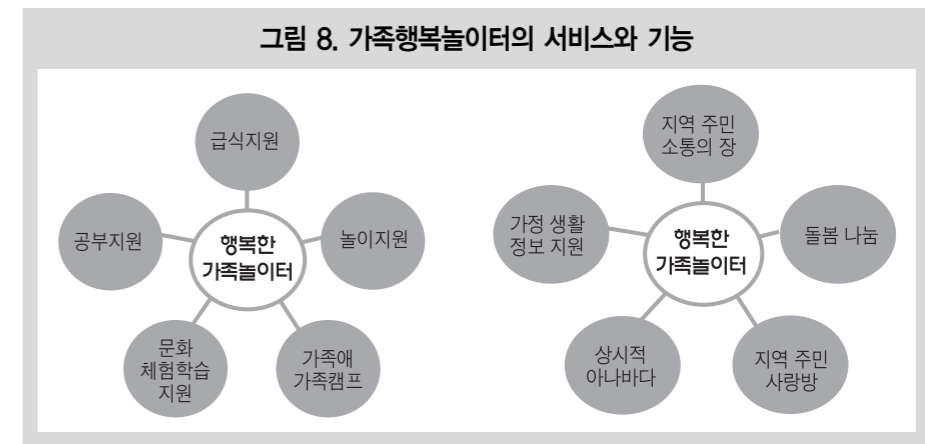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 위기의 장기화, 지속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즉 경제적 차원에서 일상적인 생활의 유지(신체적 건강 포함), 미래세대(자녀)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 가정의 대응력(공동체로서의 응집력, 정서적 친밀감, 위기에 대한 적응력과 복원력)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초유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의 가정정책은 가정문제 예방,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서비스 제공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 통합적 가족정책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 가정문제 해결 뿐 아니라 예방,

가정의 역량 강화, 삶의 질적인 향상, 전인적이 고도 포괄적인 범주에서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이미 가정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정의 자원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은 사적인 가족관계망을 확산하여 사회적이고도 공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돌봄의 품앗이를 위한 단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 한 예로 가족행복놀이터를 들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공간이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가족행복놀이터⁴⁾를 중심으로 가정의 돌봄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교환될 수 있다(그림 8).

가족행복놀이터를 통한 돌봄의 품앗이는 지역에 나눔 문화, 돌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심체로 기능할 것이며, 개인 단위, 가족 단위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자생적 돌봄의 연대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개별가정의 자생력과 자립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와 시장의 범주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생적 노력, 이를 통한 역량 강화가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고 또 장기적일 것이다. 한 편으로는 가정의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을 국가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가 추진하는 가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와 촉구라는 점에서 이러한 모델이 갖는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위기에 직면한 가족을 위한 지원 - 포괄적인 가정경영 컨설팅⁵⁾

경제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가족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들 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또한 중산층으로부터의 탈락을 방지하고 나아가 중산층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

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긴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 그 중에서도 서민층의 빈곤 예방, 탈빈곤화 기능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을 위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경제적인 차원에서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대출을 하며, 장기적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 상황 뿐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가족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상담서비스도 함께 병행되어, 가정생활에 관한 토털서비스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단지 가계재무관리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고려하여 가정경영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 생활설계,

12) 조희금 외(2005). 건강가정론. 신정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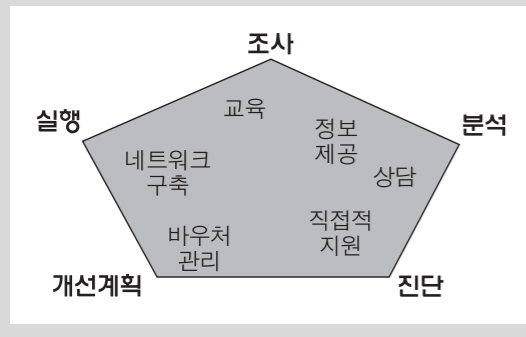
13) 송혜림(2008). 통합적 가정정책: 선언과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재인용.

성미애/송혜림(2008).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본 새 정부의 가정정책.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1-14.

1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돌봄품앗이 사업, 가족행복놀이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주관 행복한 가정 나눔터 등의 사업을 참조하여 구성함.

15)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기직면가족 기능회복 지원체계 구축 방안 자료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9. 위기에 직면한 가족을 위한 가정경영 컨설팅



경제 위기 대처 방안 마련, 노후 준비, 가족의 목표와 비전 설정, 가족 대상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바우처 관리 및 컨설팅,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위기에 직면한 가족에게는 매우 유용성이 클 것이다.

4.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교육비 부담 절감 서비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이 자녀가 없는 가족보다 소득은 높지만 물질적 곤궁의 경험이 더 많고, 경제 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자녀교육비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결과인 여가비와 외식비 그리고 식비를 먼저 줄이고, 교육비는 나중에 줄이는 현상과 관련하여, 유자녀가족에 대한 지원을 교육비 절감에 초점을 둘 때 그 효과성, 소구성, 체감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예컨대 교육비 절감이라는 방안을 고

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더욱 혹은 급격히 취약해 지고 있는 서민층을 타겟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 부문 저소득층, 빈곤층의 아동을 위한 학습, 체험활동, 특기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맞춤형이 가정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바 있다.

따라서 연령별, 학년별 발달과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과 지도, 격주 쉬는 토요일을 위한 문화체험과 특별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된다면, 방과후 학습지원 서비스를 인근 지역 아동을 몇 명 모아서 운영, 엄마가 자기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 친구를 함께 봐주는 형태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간 연계형, 아파트 내에 공부방,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방과후놀이터, 육아정보나눔터 등의 주민활용가능한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아동과 방과후 학습도우미 1인 체제로 운영, 일정한 시간 특히 밤 9시까지의 시간, 그리고 토요일, 휴일, 방학동안의 특별 운영시간을 위한 서비스, 토요일, 휴일, 방학에는 체육활동과 특기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운영방안이 적용 가능하다.

이상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대응방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직면한 가족문제 해결 뿐 아니라 가족문제의 예방,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실태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별	남	210	22.6	수입	100만원이하	52	5.6
	여	667	71.9		101~200만원 이하	173	18.6
	무응답	51	5.5		201~300만원 이하	234	25.2
결혼 상태	기혼	856	92.2		301~400만원 이하	203	21.9
	이혼	27	2.9		401~500만원 이하	124	13.4
	사별	13	1.4		501만원 이상	111	12.0
	기타	7	0.1	무응답	31	3.3	
	무응답	25	2.7	자녀수	0명	79	8.5
맞벌이 유무	예	488	52.6		1명	204	22.0
	아니오	380	40.9		2명	490	52.8
	무응답	60	6.5		3명	92	9.9
평균 연령	평균	42.36	7.72		4명 이상	19	2.0
	20~30세	44	4.7	무응답	44	4.7	
	31~40세	283	30.5	지역	서울특별시	266	28.7
	41~50세	328	35.3		경기도/인천시	275	29.6
	51세 이상	107	11.5		충청도	10	1.1
무응답	166	17.9	경상도		191	20.6	
자녀 유무	있음	823	88.7		전라도	58	6.3
	없음	79	8.5		부산광역시	60	6.5
	무응답	26	2.8		강원도	1	0.01
					무응답	67	0.7

- 실태조사 목적: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개별 가족들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조사도구: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 조사과정: 전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교 등의 협조를 받아 기혼자(이혼과 사별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 문항: 사회·인구학적 변인, 경제위

- 기로 인한 가계상태의 변화, 가족관계상의 변화, 정부서비스 수혜 경험과 요구도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
- 자료 수집: 2009년 2월, 1,000부의 질문지를 배부, 총 974부를 수거, 최종적으로 928부를 분석
- 조사지역: 서울시, 2개 광역시(인천과 부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북쪽**